

李 時 伯*
朴 丙 台**
崔 焯**

婚前妊娠經驗婦人の 出産力水準 考察

I. 序 論
II. 研究方法
III. 婚前妊娠婦人の 特性
IV. 出産力水準 및 出産調節行爲 樣相
V. 結 論

I. 序 論

1. 研究背景

出生은 人口動態現象의 가장 基本的인 要因의 하나이며, 死亡과 함께 人口成長에 直接 영향을 주기 때문에 出生率의 低下는 出産調節政策의 가장 焦點이 되는 目標다. 人口變遷(demographic transition)의 마지막 段階로서 死亡率의 低下와 함께 出産率의 低下는 人口成長의 安定時期로 進入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낮은 死亡率에 비하여 아직까지도 높은 出生率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出生에 대한 問題가 重要視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出生이 人口成長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人口比例에 대한 出生數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차원에서 出生時期가 중요시된다. 그 社會가 처해 있는 文化的 背景 속에서 決定되는 結婚時期는 妊娠-出産時期를 決定해주는 중요한 指標가 될 수 있다. 婚前純潔을 특히 強調해온 과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文化背景에서는 出生의 時期가 結婚時期에 절대적인 從屬現象으로 간주 되었으나 近代化의 過程을 거쳐 오면서 傳統的인 價値觀의 점차적인 붕괴와 더불어 結婚時期 역시 出生을 決定해주는 絶對的 關係에서 점차로 離脫해 가는 社會의 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結婚時點에 準해서 엄격한 時間間隔을 가지고 妊娠이 되는 것이 아니고 結婚時點에 關係없이 임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屢증되고 있는데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같이 結婚時期와 出生現象의 非傳統的인 離脫現象은 결국 人口學的인 觀點에서 child-bearing tempo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注目된다. 그래서 出生時期를 결정하는 基本要因인 妊娠時期가 家族의 生活周期(family life cycle)의 側面에서 어떻게 決定되어지고 있는지 그 本質을 分析한다는 것은 장래 出産變動을 예측하는데 대단히 重要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 일반 人口 및 家族計劃 研究者들은 妊娠-出産時期에 대한 重要性을 人口學的인 側面에서 강조하고는 있었으나, 실제 他分野에 비해 研究實績은

* 家族計劃研究院 副院長.

** 家族計劃研究院 研究員.

무엇하지 못하였다. 특히 첫 妊娠時期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으며¹⁾ 또 妊娠 또는 出産이 結婚前에 이루어지고 있는 現象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出産力, 研究는 앞으로 상당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2. 研究目的

結婚時期*와 出産時期間에 非傳統의인 離脫現象을 가져오는 婚前妊娠이 人口學的인 側面에서 重要視되는 理由는 婚前妊娠이 結果적으로 出産可能期間을 연장시킨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첫 妊娠時期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可妊期間을 연장시키게 되며, 이것은 곧 出産力水準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이 될 것이다. 家族計劃實踐을 고려하지 않는 狀態에서 볼 때 이들의 出産力은 婚前妊娠의 經驗이 없는 婦人보다 높게 될 可能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婚前妊娠 婦人の 出産力水準이 婚前妊娠의 經驗이 없는 婦人보다 높다면, 이들의 家族計劃實踐은 또 다른 側面에서 주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妊娠時期를 늦추기 위하여 婚前에 家族計劃實踐을 유도할 수 있도록 婚前期 女性들에 대한 家族計劃 및 人口教育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研究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目的은 다음과 같이 要約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변천에 따른 妊娠時期 變化를 結婚時期 樣相과 相關하여 考察하고,

둘째, 婚前妊娠婦人の 出産力水準을 婚前妊娠의 經驗이 없는 婦人の 出産力水準과 比較分析하며,

셋째, 婚前妊娠婦人群의 家族計劃實踐行爲를 把握하고,

넷째, 以上の 結果를 토대로 婚前期女性들에 대한 家族計劃事業에 필요한 資料를 提供한다.

II. 研究方法

1. 資料

本研究는 1976년에 전국적으로 15歲부터 49歲까지의 既婚婦人 6,020名을 대상으로 調査한“全國 出産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査”에 使用된 資料를 利用하였다. 그러나 實際分析은 總 對象婦人 가운데 結婚과 妊娠歷이 確實한 5,996名(表1 參照)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의 婚前妊娠經驗 및 出産力實態를 重點적으로 分析하였다. 婚前妊娠에 관한 資料는 婚前妊娠이 우리 社會에서는 普遍性이 없기 때문에 出産 및 避妊歷을 진술하는 個人의 立場에서 正確한 情報提供을 하지 않아 過小 評價될 餘려가 있다. 그러나 出産歷을 기록하는 過程에서 結婚時期, 最初出産時期, 各妊

註 1) P. J. Donaldson, D. J. Nichols, "The Changing Tempo of Fertility in Korea" (mimeo).

* 本稿에서 結婚時期는 法律婚을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라 婚姻當事者間에 定規的인 同棲生活이 처음 始作된 時點을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法律的인 측면에서 본다면 婚前妊娠은 本稿에서 提示하고 있는 數値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娠 및 出產順位 등에 대한 多角的인 檢討가 있었으므로 比較的 正確한 資料를 얻을 수 있었다. 本研究의 婚前妊娠 基準은 婦人이 應答한 結婚年月을 중심으로 妊娠, 出生順位에 따라 各妊娠, 出生의 時期를 檢討하여 婚前妊娠與否를 決定하였다.

2. 分析方法

婚前妊娠婦人의 出產力水準을 考察하기 위하여 選定된 變數로는 出產力水準을 說明할 수 있는 (1)總妊娠回數 (2)現存子女數, 그밖에 이와 관련되는 (3)妊娠消耗 (pregnancy wastage) 를 채택하였다. 家族計劃과 관련해서는 避妊實踐狀態를 各各 從屬變數로 定하였다.

한편 出產力 및 家族計劃을 說明하기 위한 獨立變數로는 過去 이 分野 調查研究에서 出產力 및 家族計劃行爲에 중요한 作用變數로 알려진 (1)婦人의 年齡 (2)結婚年齡 (3)現在居住地 (4)教育程度 (5)婚前就業與否 등을 選定하였다. 이들 變數들을 中心으로 婚前妊娠經驗이 있는 婦人과 없는 婦人間의 出產力水準의 差異 및 家族計劃實踐樣相의 差異를 比較分析하였다.

III. 婚前妊娠婦人의 特性

1. 婚前妊娠婦人의 變動趨勢

開放된 社會일수록 一般의으로 婚前妊娠의 頻度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差異는 時代的인 또는 社會의 構造的인 背景에 따라 留意한 說明을 할 수 있을 것이다. 一般의으로 傳統의인 男女間의 倫理·道德觀을 重要視하고 있는 社會에서는 妊娠·出產의 時期가 結婚時期로부터 分명한 一定間隔 以上을 유지하고 있음이 관찰되나 서구식의 近代의인 文化背景을 가진 社會일수록 結婚의 時期에 구애됨이 없이 불규칙적인 婚前妊娠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우리나라도 1945年 以後 西洋文物의 쇄도와 새로운 社會經濟開發이 本格化되면서부터 傳統的인 社會倫理概念에 상당한 變化가 있었다. 특히 女性의 教育向上, 雇傭機會의 增大는 男女間의 社會的인 접촉을 빈번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結婚樣相에도 상당한 變化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社會的 變化의 影響으로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年 以前에 結婚한 婦人들의 婚前妊娠 經驗率은 10퍼센트 未滿이었으나, 1960年代 後半에서부터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그 經驗率은 2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어 점차적으로 婚前妊娠率이 增加하는 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장 最近인 1974年에서부터 1976年 사이에 結婚한 婦人의 婚前妊娠 經驗率은 26퍼센트로서 1/4以上이 婚前妊娠을 經驗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註2) 美國의 경우 1971年 당시 15-19歲 女性群에서 性經驗을 가진 女性이 30퍼센트, 性經驗을 가진 女性中에서 約 29퍼센트는 婚前妊娠을 經驗하였음. 한편 15-19歲 女性群에서 妊娠經驗이 있는 女性의 約 75퍼센트는 첫 妊娠이 婚前妊娠임.

Melvin Zelnik and John F. Kantner, "The Resolution of Teenage First Pregnancie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Vol. 6, No. 2, Spring, 1974.

Table 1. Trends in Premarital Pregnancy Rates by the Marriage Cohort

Marriage Year	Number of Respondents	Premarital Pregnancy Rate (%)	Premarital Birth Rate (%)	Premarital Birth/Premarital Pregnancy Rate (%)
All Women	5,996	14.4	3.3	22.6
Before 1950	727	3.2	1.2	39.1
1950-1954	751	5.3	2.3	42.5
1955-1959	884	9.0	2.4	26.3
1960-1961	335	10.1	2.1	20.6
1962-1963	378	13.5	3.7	27.5
1964-1965	389	15.7	3.3	21.3
1966-1967	410	19.5	4.9	25.0
1968-1969	447	21.7	3.6	16.5
1970-1971	503	21.9	3.2	14.5
1972-1973	538	23.2	4.5	19.2
1974-1976	634	26.0	6.2	23.6

反面 婚前出生의 경우는 그리 높지 않은 便으로 婚前妊娠에 대한 出生의 比率을 보면 各 結婚 年度別로 20퍼센트 内外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婚前妊娠의 終結狀態가 出產以前에 結婚을 하였기 때문에 婚前出生을 하지않은 경우와, 또 한편으로는 出產하기 前에 妊娠過程에서 人工妊娠中絶로 끝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婚前妊娠에 대한 婚前出生의 比率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婚前妊娠婦人이 結婚으로 連結되는 結果는 全体 婚前妊娠 經驗婦人 가운데 상당히 높은 率을 차지하고 있음이 報告되고 있다.³⁾

2. 社會·人口學的 特性에 따른 婚前妊娠 經驗與否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結婚-妊娠-出產과 같은 人口動態現象은 그 社會의 文化的인 背景과 時代的인 變遷에 따라 그 樣相이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一般的인 假說下에 婚前妊娠經驗婦人에 대해서 逆行的인 觀察(retrospective approach)에 의거 그 特性을 밝히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個人을 지배하고 있는 社會·經濟的인 屬性을 말해주는 여러가지 社會變數에 따라 婚前妊娠이 어느 程度 差異를 보이고 있는지 與否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目的으로 使用된 變數는, 첫째, 人口學的 變數로서 (1)時代變遷에 따라 婚前妊娠 變化를 설명해 줄 對象者의 現年齡, (2)妊娠과 結婚의 相關性을 나타내며 婚前妊娠의 時期를 決定해 주는 結婚年齡,

註3) 婚前妊娠의 結婚狀態를 보았을 때 結婚當時에 約 78퍼센트가 妊娠中이었다.

宋 建 鏞, "韓國婦人의 婚前妊娠에 관한 研究", 家族計劃論集, 第2号, 家族計劃研究院, 1975. pp 5-18.

Table 2. Per Cent Distribution Between Premarital and Postmarital Pregnancy Women by Respondent'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Premarital Pregnancy Women	Postmarital Pregnancy Women	Total	(N)
All Women	14.4	85.6	100.0	(5,996)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of Women				
Under 25	24.2	75.8	100.0	(636)
25-34	19.9	80.1	100.0	(2,377)
35-44	9.1	90.9	100.0	(2,196)
45-49	5.2	94.8	100.0	(787)
Age at First Marriage				
Under 20	8.1	91.9	100.0	(2,426)
20-22	17.5	82.5	100.0	(2,153)
23 and Over	20.6	79.4	100.0	(1,417)
Socio-Economic Status				
Current Residence				
Urban	17.5	82.5	100.0	(3,046)
Rural	11.3	88.7	100.0	(2,950)
Educational Attainment				
Primary School or Below	10.7	91.3	100.0	(3,956)
Middle School	20.7	79.3	100.0	(1,118)
High School and Over	23.1	76.9	100.0	(922)
Work Experience Before Marriage				
Worked	24.3	75.7	100.0	(1,441)
Never Worked	11.3	88.7	100.0	(4,555)
* Respondent's Mean Age :	30.9	35.2		

둘째, 社會·經濟學的 變數로서 (3)個人的 家族形成過程(family life cycle)에 대한 意識構造와 價値觀을 측정하는데 기본적인 指標가 될 수 있는 教育程度, (4)生活居住地, (5)開放社會에서 男女間의 意思疏通形成과 結婚形成 形態를 지배할 수 있는 婚前就業經驗與否 등으로 區分하였다.

이상과 같은 變數 中心의 婦人 特性에 따라 婚前妊娠 經驗率의 差異를 把握함은 앞으로 이들에 대한 出產力水準을 考察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 一般的인 特性에 따른 婚前妊娠經驗率의 差異

表2에서 보면 1976年 調査當時 15-49歲 既婚婦人中 14.4퍼센트가 婚前妊娠의 經驗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婦人의 現在年齡群別로 보면 25歲 未滿의 젊은 年齡群에서 婚前妊娠經驗率이 約 24퍼센트로 다른 年齡群에 비해서 가장 높다. 現年齡에 대한 婚前妊娠 經驗率의 分布로 보아 現年齡의 上昇에 따라 婚前妊娠 經驗率이 낮아지고 있는 現象은 最近에 結婚한 婦人일수록 婚前妊娠이 많다는 時代的인 傾向을 뚜렷이 露出시키고 있다.

結婚當時의 年齡別 婚前妊娠率의 分布는 現年齡에서 볼 수 있었던 逆比例的인 現象과는 정반대로 初婚年齡이 높은 層에서 婚前妊娠率의 현저한 上昇이 관찰된다. 이것은 앞서 現年齡이 낮은 婦人群에서 婚前妊娠率이 높은 이유를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다.

現居住地別로 婚前妊娠의 經驗分布를 보면 都市가 約 18퍼센트, 農村이 約 11퍼센트로 都市의 경우가 더 높다. 이것은 結婚前後에 있을 수 있는 都市·農村間 移動의 영향을 고려치 않고 볼 때, 이들은 都市生活에서 異性間의 接觸機會가 많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教育水準의 경우, 높은 教育을 받은 婦人일수록 婚前妊娠經驗率이 더 높다. 教育水準은 社會活動 參與를 상대적으로 나타내주는 變數로서 教育水準과 婚前妊娠經驗率間의 높은 相關性을 充分히 說明해 주고 있다.

婚前就業 經驗有無에 따라 婚前妊娠 經驗率을 比較해 보면 婚前就業 經驗이 있는 婦人의 경우, 婚前妊娠經驗率이 24퍼센트로 婚前就業經驗이 없는 婦人의 11퍼센트 보다 倍以上으로 높다.

以上에서 檢討해 본 結果, 최근에 結婚한 젊은 年齡層婦人, 結婚時期가 늦은 婦人, 都市居住地婦人, 높은 教育水準에 있는 婦人, 婚前就業을 가진 婦人 등 社會活動의 參與度가 높은 階層의 婦人 내지 現代的인 社會背景이 강한 婦人層에서 婚前妊娠經驗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婚前就業經驗與否에 따른 婚前妊娠經驗率 比較

그러면 좀 더 具體的으로 婚前妊娠經驗率에 重要한 影響力을 나타내고 있는 “婚前就業經驗與否” 變數를 가지고 婦人의 각 特性別 婚前妊娠經驗 變化를 살펴보면 表3과 같다.

먼저 婚前就業經驗이 있는 婦人群에서 볼 때, 各 特性別로 거의 모두 20퍼센트 以上の 持續的인 높은 婚前妊娠經驗率을 보이고 있다. 다만 婦人의 特性으로 보아 婚前妊娠經驗率이 낮은 集團을 찾는다면 現在年齡이 45-49歲 사이의 婦人, 즉 오래전에 結婚한 婦人群에서 가장 낮은 9.6퍼센트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年齡群에서도 역시 婚前就業經驗有無에 따라 그 影響은 큰것으로 보인다. 특히 높은 婚前妊娠經驗率을 보이는 特性群은 現年齡 25歲 未滿의 젊은 婦人層과, 結婚을 20-22歲 사이에 한 婦人群에서 約 30퍼센트에 가까운 높은 經驗率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現居住地가 都市인 경우와 教育水準이 中學校 以上을 받은 婦人群 등에서도 높은 婚前妊娠 經驗率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3. Comparison of Premarital Pregnancy Rates Between Those Women Who Have and Have Not Working Experiences Before Marriage by Their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Worked % (N)	Never Worked % (N)
All Women	24.3 (1,441)	11.3 (4,555)
Age of Women		
Under 25	29.9 (284)	19.6 (352)
25-34	27.2 (780)	16.3 (1,597)
35-44	15.1 (304)	8.1 (1,892)
45-49	9.6 (73)	4.8 (714)
Age at First Marriage		
Under 20	17.2 (273)	7.0 (2,153)
20-22	29.6 (524)	13.6 (1,629)
23 and Over	23.0 (644)	18.6 (773)
Current Residence		
Urban	25.5 (1,004)	13.6 (2,042)
Rural	21.5 (437)	9.5 (238)
Educational Attainment		
Primary School or Below	20.4 (501)	9.3 (3,455)
Middle School	28.1 (406)	16.4 (712)
High School and Over	25.1 (534)	20.4 (388)

婚前就業의 經驗이 없는 婦人의 婚前妊娠經驗 變動을 살펴보면 各 特性別로 大部分이 20퍼센트 未滿의 婚前妊娠經驗率을 보이고 있다. 단지 現年齡이 35歲 未滿인 젊은 年齡層과 結婚年齡이 23歲 以上인 늦게 結婚한 婦人層, 그리고 高等學校 以上の 높은 教育을 받은 婦人層에서 約 20퍼센트에 가까운 높은 婚前妊娠經驗率을 나타내고 있다. 婚前就業의 重要性이 앞에서 檢討한 바와 같이 모든 階層에서 優勢하게 영향을 주고 있으나, 젊은 年齡層 婦人, 늦게 結婚한 婦人層 그리고 비교적 높은 教育을 받은 婦人層에서는 婚前就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높은 婚前妊娠經驗을 보이고 있음이 注目된다.

以上 婚前就業經驗別로 나누어 檢討해 본 結論으로서 婚前就業經驗이 一般的으로 婚前妊娠率에 영향을 주고 있음은 당연하나, 최근에 結婚한 젊은 婦人層, 教育水準이 높은 婦人層, 그리

Table 4. Trends in Changing Premarital Pregnancy Rate by Respondent's Characteristics and the Marriage Cohort

	Marriage Year		
	Before 1960 % (N)	1960-1969 % (N)	1970-1976 % (N)
All Women	6.1 (2,362)	16.5 (1,959)	23.9 (1,675)
Age at First Marriage			
Under 20	4.6 (1,699)	13.0 (477)	22.4 (250)
20-22	9.9 (543)	17.0 (913)	24.1 (697)
23 and Over	8.3 (120)	18.6 (569)	24.2 (728)
Current Residence			
Urban	9.2 (993)	17.5 (1,071)	26.1 (982)
Rural	3.8 (1,369)	15.3 (8,888)	20.8 (693)
Educational Attainment			
Primary School or Below	4.8 (2,021)	14.0 (1,214)	21.4 (721)
Middle School	11.5 (217)	19.1 (404)	26.0 (497)
High School and Over	16.1 (124)	22.3 (341)	25.6 (457)
Work Experience Before Marriage			
Worked	10.0 (209)	24.7 (430)	27.8 (223)
Never Worked	5.7 (2,153)	14.2 (1,529)	20.3 (177)

고 늦게 結婚한 婦人들은 婚前就業에 관계없이 높은 婚前妊娠의 經驗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結果는 결국 社會變遷 내지 現代思想의 影響이 就業經驗보다 더 強하게 作用한 結果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이것은 社會의 開放度가 높을수록 婚前妊娠 經驗率이 높다는 것을 意味한다.

다. 結婚年度別 婚前妊娠經驗率 變動

表1에서 提示한 바와 같이 婚前妊娠經驗率은 近來에 오면서 增加되어 가는 現象을 찾아 볼 수 있었다. 近來에 오면서 婚前妊娠 經驗率이 높아져 가는 事實은 또한 婚前妊娠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 즉 女性이 社會에 參與하는 機會의 增大 또는 婦人의 各 特性이 過去와는 相異하게 變化되어 온 데에 연유하지 않았나 추측하게 한다. 따라서 表4에서는 結婚年度를 셋으로 나누어 各 婦人의 여러가지 特性에 따른 婚前妊娠 經驗率을 考察해 보았다.

앞서 婦人의 現年齡別 婚前妊娠의 差異에서도 說明한 바 있으나, 結婚年度에 따라 婚前妊娠率의 變動은 뚜렷하다. 즉, 1960年 以前에 結婚한 婦人의 婚前妊娠率이 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반면 1960년부터 1969年 사이에 結婚한 婦人은 1960年 以前에 보여준 率보다 훨씬 높은 約 16.5퍼센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70年 以後 結婚한 婦人群에서는 約 24퍼센트로서 近來에 결혼한 婦人일수록 높은 婚前妊娠率을 보이는 現象이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婦人의 結婚年齡으로 보아서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影響은 앞의 說明을 분명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즉, 結婚年齡에 관계없이 1970年 以後에 結婚한 婦人은 1960年代 結婚한 婦人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個人의 特性에 의한 婚前妊娠率의 說明보다 시대의 變化에 따라 더욱 強하게 影響받고 있다는 說明이 가능한 이유는 現居住地域, 教育水準別 分布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農村과 都市의 差가 없이, 教育水準의 差를 크게 받지 않고 1970年 以後 結婚한 婦人群에서 높은 婚前妊娠率을 露出하고 있는것은 社會變遷에 따른 시대적 影響이 절대적임을 再確認하게 한다.

3. 婚前妊娠의 終結狀態

婚前妊娠의 終結狀態는 結婚時點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 네가지 類型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結婚前에 人工流産 내지 其他形態의 妊娠消耗現象으로 나타나는 경우, 둘째, 結婚前에 正常出産으로 終結되는 現象, 그리고 셋째, 結婚後 正常出産으로 終結되는 경우, 넷째, 結婚後 正常出産이 아닌 其他形態로 나타나는 現象 등이다. 이들 네가지 類型 가운데 各 現象이 차지하는 重要性은 앞에서 論議한 바와 같이 出産水準變動에 影響을 주는 點은 周知의 實事이거나, 또 다른 次元에서 婚前妊娠婦人들의 意識構造 및 價値觀에 따라 出産行爲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問題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婚前妊娠經驗婦人의 婚前妊娠 終結狀態를 分析한다는 것은 이들 婦人의 出産行爲에 대한 評價資料로서 대단히 重要的 것이다.

表5에서는 婚前妊娠婦人の 첫 妊娠終結狀態를 앞서 提示한 네가지 類型에 따라 考察하여 보았다. 全体 婚前妊娠婦人 866名 中에서 첫 妊娠이 正常出産으로 終結된 狀態는 거의 대부분인 約 8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約 14퍼센트가 妊娠消耗로 終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分析의 內容은 婚前妊娠終結의 일반적인 變化性を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婚前妊娠經驗婦人에 局限하여 관찰한 妊娠終結의 樣相을 살펴 본 것이다. 즉, 婚前妊娠을 한 女性 가운데 結婚으로 연결된 婦人만 對象으로 하였기 때문에 未婚狀態로서 人工妊娠中絶을 포함한 妊娠消耗率은 그 意味의 制限性を 가진다. 그러나 局部的인 內容만을 分析한 點을 감안하고 볼 때 婚前妊娠經驗婦人群의 상당수가 正常出産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또한 人工妊娠中絶의 比率水準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이 관찰되고 있음은 역시 우리나라 文化背景과 관계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婚前妊娠의 終結狀態를 結婚時期를 基準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첫 妊娠終結이

Table 5. First Pregnancy Outcome of Premarital Pregnancy Women by Time the Events Occured

Outcomes	The Events Occured		
	Total	Before Marriage	After Marriage
	N (%)	N (%)	N (%)
Live Birth	748 (86.4)	187 (21.5)	561 (64.8)
Induced Abortion	70 (8.1)	65 (7.5)	5 (0.6)
Spontaneous Abortion	34 (3.9)	26 (3.0)	8 (0.9)
Still Births	7 (0.8)	2 (0.2)	5 (0.6)
Current Pregnant	7 (0.8)	—	7 (0.8)
Total	866 (100.0)	280 (32.3)	586 (67.7)

結婚前에 이루어진 경우는 約 32퍼센트임에 比하여 結婚後에 이루어진 것이 約 68퍼센트로서 훨씬 높다. 그런데 이를 좀더 具體的으로 妊娠終結을 時期別로 살펴보면 먼저 結婚前에 妊娠消耗로 終結된 경우는 約 11퍼센트이며 이 中 人工妊娠中絶이 約 8퍼센트로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結婚前에 이루어진 正常出産의 경우는 約 22퍼센트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록 結婚後에 正常出産으로 終結된 경우의 約 65퍼센트보다는 훨씬 적지만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은 흥미로운 일이다. 즉, 婚前에 子女를 가지는 것을 극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과거 傳統的인 價値觀에 비추어 볼 때 크게 離脫된 現象으로서 社會變遷에 따른 하나의 새로운 社會現象으로 注目된다. 그 밖에 結婚後에 妊娠消耗로 終結된 경우는 불과 3 퍼센트 程度로서 낮은 便이다.

以上 婚前妊娠婦人の 첫 妊娠終結狀態를 통하여 나타난 結果는 다음 두가지 側面에서 解釋해 볼 수 있다. 첫째, 婚前妊娠의 대부분이 正常出産으로 終結되며, 그것도 結婚後에 終結됨으로

써 結婚과의 連結性이 높게 보여주고 있으나 상당수를 차지하는 正常出産이 婚前에 終結되고 있음은 그만큼 變遷해 가는 意識構造 및 社會現象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러한 婚前 正常出産 婦人이 많은 것은 child-bearing tempo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婚前妊娠의 대부분이 正常出産으로 終結되었지만 婚前에 人工流産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즉, 이것은 婚前妊娠이 원하지 않은 妊娠이었음을 말해주는 結果로 해석된다.

IV. 出産力水準 및 出産調節行爲 樣相

本研究의 가장 核心的인 部分은 婚前妊娠婦人들의 出産力水準이 一般 婦人의 出産力水準에, 比하여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究明하는데 있다. 이들 特殊層 婦人들은 이들이 가질 수 있는 正常的인 첫 出産時期가 婚前妊娠으로 인하여 빨라지기 때문에 一般 婦人들의 出産力 水準보다 높아질 수 있는지, 아니면 結婚以前에 妊娠을 하였으나 近代化의 영향을 強하게 받은 集團이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出産力水準을 보일 수 있을지 與否가 注目된다. 또 이들 婦人들의 出産調節 行爲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러한 點에서 本研究의 結果는 婚前 젊은이를 위한 家族計劃 弘報活動 내지 避妊 서서비스 計劃에 重要的 資料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I. 出産力水準

일반적으로 出産力이라 함은 生理的으로 妊娠과 出産이 可能的인 女性(15歲-49歲)으로부터 실제 이루어진 出生數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妊娠 및 出産이 가능한 年齡 사이의 全体 女性은 現在 結婚한 婦人和 結婚하지 않은 未婚女性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들 두 集團의 年齡別 分布와 또 실제 既婚婦人들의 出産數에 따라 出産力 水準은 영향을 받게 된다.

本研究對象은 이미 앞장에서 言及된 바와 같이 既婚女性만 抽出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出産力 測定은 一般出産力の 性格에서 좀더 純化된 配偶出産力을 意味한다. 이들의 出産力 水準을 測定하기 위해서는 一定期間 동안에 일어난 總出生數를 기본으로 하여 計算할 수 있다. 그러나 本研究에서는 出産記錄의 複雜性 때문에 資料處理가 지연되어 우선 調查時點까지 婦人이 出産한 數만을 가지고 出産力 水準을 檢討하기로 했다. 이러한 簡易方法에서 채택된 指標로서는, (1)總 妊娠回數, (2)總生存子女數, 그리고 (3)總出生子女數를 사용했으며 이 指標結果에 따라 婚前妊娠婦人和 婚後妊娠婦人群의 差異를 檢討했다.

가. 總妊娠回數

表 6 에서는 婚前妊娠婦人과 婚後妊娠婦人群(妊娠無經驗 婦人 包含)의 總妊娠經驗回數를 分析比較해서 살펴 보았다. 먼저 이들 兩群 婦人들의 平均妊娠回數를 보면 婚後妊娠 婦人群이 4.8 회로서 婚前妊娠 婦人群의 4.3회보다 약간 높다. 各 特性別 平均 妊娠回數에서도 대체로 婚後 妊娠婦人群이 婚前妊娠婦人群보다 높게 관찰된다. 그러나 이것을 結婚年度別로 나누어 分析해 보면 앞에서 관찰된 狀況과 正反對의 現象을 보이고 있어서 注目된다. 이러한 結果는 統計的으로 平均의 概念이 確實치 못할 때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이다. 즉, 兩集團 婦人群의 實際數가 結婚年度別로 均等히 배분되어 있지 않고 어느 한 쪽으로 몰려 있어 平均을 計算할 때 그 값의 미치는 影響이 크게 作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結婚年度別로 나누어서 平均妊娠數를 보면 上記의 偏重된 값의 影響이 年度別로 獨立的으로 作用하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 동안의 變動을 正確히 관찰할 수 있다. 실제 兩婦人群의 結婚期間을 計算하여 비교한다면, 婚前妊娠婦人群의 結婚期間은 婚後妊娠婦人群보다 짧은 意味를 내포하고 있다.

Table 6. Mean Number of Total Pregnancies by Respondent's Characteristics, Marriage Year and Pregnancy Status

Respondent's Characteristics	Before—1960		1960—1969		1970—1976		Total	
	Premarital Pregnancy Women	Postmarital Pregnancy Women	Premarital Pregnancy Women	Postmarital Pregnancy Women	Premarital Pregnancy Women	Postmarital Pregnancy Women	Premarital Pregnancy Women	Postmarital Pregnancy Women
All Women	6.8	6.4	5.3	4.7	2.7	2.0	4.3	4.8
Current Residence								
Urban	6.6	6.3	5.5	4.7	2.8	2.0	4.4	4.5
Rural	7.0	6.5	5.1	4.7	2.5	1.9	4.3	5.0
Educational Attainment								
Primary School or Below	7.1	6.4	5.2	4.7	2.6	2.0	4.7	5.2
Middle School	7.3	6.8	5.3	4.7	2.7	1.9	4.0	4.0
High School and Over	4.7	5.4	5.7	4.8	2.8	1.9	4.0	3.5
Work Experience Before Marriage								
Worked	6.5	6.4	5.5	4.8	2.7	1.9	3.7	3.5
Never Worked	6.8	6.4	5.2	4.7	2.7	2.0	4.7	5.1

各結婚年度別 妊娠回數를 兩婦人群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婚前妊娠婦人群이 持續적으로 높다. 이러한 경향과 함께 兩群의 平均妊娠回數의 差異는 近來에 올수록 심한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婚前妊娠婦人群의 妊娠回數가 높다고 해서 이들 婦人의 出産力水準이 반드시 높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妊娠回數가 出産力水準을 推理할 수 있는 間接的인 要因은 될 수도 있겠으나, 실제 出生兒數의 概念과는 다르기 때문에 直接的인 影響을 줄 수는 없다. 특히 嬰兒死亡率이나 人工妊娠中絶率이 높은 社會 또는 特殊人口階層에서는 妊娠回數의 重要性이 희박해진다. 妊娠回數가 실제 出産力에 미치는 影響은 다음 現存子女數別, 出生子女數別, 그리고 이들의 人工妊娠中絶 實態에서 把握될 수 있을 것이다.

平均妊娠回數를 各 婦人의 特性別로 나누고 이것을 結婚年度別로 그 變化를 具體적으로 分析해 볼 때 兩婦人群들의 平均妊娠回數가 相互 큰 差異를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現居住地域別로 都市 農村으로 나누어 볼 때도 婚前妊娠婦人 集團이 結婚年度別로 높은 妊娠回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差異는 農村보다 都市가 더 크다. 일반적으로 都市가 農村보다 出産力水準이 낮은 것을 고려한다면 本分析에서 보여준 都市地域의 높은 妊娠數는 결국 各妊娠의 終結狀態가 대부분 人工妊娠中絶로 끝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은 우리나라 人工妊娠中絶實態調査에서 밝힌 바와 같이 都市地域住民들이 農村地域住民보다 월등히 높은 經驗率을 提示하고 있는 研究報告로서 뒷받침될 수 있다(洪, 1976, 朴外, 1978)⁴⁾.

나. 現存子女數

表7에서는 現存子女數 分布를 통하여 婚前妊娠婦人群과 婚後妊娠婦人群의 出産力水準을 비교해서 살펴 보았다. 먼저 전체적으로 平均現存子女數를 보면, 婚前妊娠婦人群의 경우 2.7名, 婚後妊娠婦人群의 경우 3.3名으로 婚前妊娠婦人群이 더 적은 子女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근래에 오면서 婚前妊娠經驗率이 增加하여 온 것을 勘案하여 結婚年度別로 나누어 보면, 婚前妊娠婦人群과 婚後妊娠婦人群의 平均現存子女數는 그 差異가 줄어들고 있다. 즉 1960年以前에 結婚한 婦人들에서 이러한 두 集團間의 平均現存子女數 差異는 0.2名이며, 1960年에서 1969年 사이에 結婚한 婦人에서 그 差異는 0.1名이며, 1970年에서 1976年 사이에 結婚한 婦人의 그 差異는 오히려 婚前妊娠婦人群의 平均現存子女數가 0.4名 程度 더 높다. 이와 같이 結婚年度가 최근에 이룰수록 兩婦人群間의 平均現存子女數의 差가 줄고, 1970年 以後부터는 婚前妊娠 婦人들의 平均現存子女數가 높아지는 現象은 婚前妊娠婦人들의 特性에서 檢討된 바와 같이 이들은 상당수가 최근에 結婚한 사람이 많고 활발한 出産活動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

註4) Sung-Bong Hong, Walter B. Watson. *The Increasing Utilization of Induced Abortion in Korea*. Korea University Press, 1976.

朴丙台, 崔炳睦, 權豪淵. 1976年 全國出産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査. 家族計劃研究院, 1978.

Table 7 Mean Number of Living Children between Premarital and Postmarital Pregnancy Women by Respondent's Characteristics and Marriage Cohort

Respondent's Characteristics	Under-1960		1960-1969		1970-1976		Total	
	Premarital Pregnancy Women	Postmarital Pregnancy Women	Premarital Pregnancy Women	Postmarital Pregnancy Women	Premarital Pregnancy Women	Postmarital Pregnancy Women	Premarital Pregnancy Women	Postmarital Pregnancy Women
All Women	4.3	4.5	3.1	3.2	1.7	1.3	2.7	3.3
Current Residence								
Urban	3.8	4.0	2.9	2.9	1.7	1.3	2.5	2.8
Rural	5.1	4.9	3.4	3.5	1.7	1.3	2.9	3.7
Education of Women								
Primary School or Below	4.6	4.6	3.3	3.4	1.7	1.4	3.0	3.7
Middle School	4.3	4.0	3.0	2.9	1.7	1.2	2.4	2.5
High School and Over	2.9	3.2	2.7	2.7	1.7	1.2	2.2	2.0
Work Experience Before Marriage								
Worked	3.8	3.8	2.8	2.7	1.6	1.2	2.1	2.1
Never Worked	4.4	4.6	3.3	3.3	1.8	1.4	3.0	3.6

계 婚前妊娠婦人들의 出産水準은 앞으로 활발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를 좀더 具體적으로 婦人の 結婚年度別 및 其他特性別로 나누어 보면, 1970年 以前에 結婚한 모든 特性別 婦人들은 대부분 婚後妊娠의 경우가 婚前妊娠婦人群보다 약간 높은 出産力水準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70年 以後에 結婚한 婦人は 各 特性에 구별없이 婚前妊娠의 경우가 婚後妊娠婦人群보다 더 높은 出産力水準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1970年 以前에 結婚한 婦人群 中에서도 婚前妊娠婦人群이 婚後妊娠婦人群보다 오히려 높은 出産力水準을 보여주는 特性群으로는 대체로 現居住地가 農村인 경우, 教育程度가 中學校教育을 받은 경우, 婚前就業에서 就業經驗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나 그 差異도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지금까지 婦人の 平均現存子女數를 통하여 考察해본 結果, 出産力水準에서 婚前妊娠婦人群과 婚後妊娠婦人群을 비교하여 볼 때, 뚜렷하게 지적될 수 있는 점은 結婚年度에 따라, 婚前妊娠經驗婦人の 増加에 따라, 現存子女數도 増加해 가고 있는 現象이다. 이 現象은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婚前妊娠婦人群의 潛在出産力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Table 8. Mean Number of Living Children Between Premarital and Postmarital Pregnancy Women by Respondent's

Age	Premarital Pregnancy Women	Postmarital Pregnancy Women
Under 25	1.3	0.8
25-29	2.1	1.9
30-34	3.0	3.1
35-39	3.7	3.8
40-44	3.7	4.5
45-49	4.5	4.7
All Ages	2.7	3.3

앞에서 結婚年度에 따라 婚前妊娠婦人과 婚後妊娠婦人의 現存子女數가 달라짐이 밝혀졌다. 具體적으로 婚前妊娠婦人이 婚後妊娠婦人보다 出産力水準이 높다고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指標로서 現存子女數를 婦人의 年齡別로 分析했다. 表 8에 의하면 婦人 現年齡이 30歲 未滿에서는 婚前妊娠婦人群의 平均現存子女數가 婚後妊娠婦人群보다 높다. 이것은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婚前妊娠婦人群의 年齡이 아직 젊고 出産活動이 활발히 進行할 것으로 보아 婚後年度別 變化狀況에서 說明한 높은 出産活動趨勢를 재확인하고 있다.

다. 總出生子女數의 差異

表 9에서 總出生子女數를 통하여 婚前妊娠婦人과 婚後妊娠婦人의 出産力水準을 比較分析하여 보면 그 樣相은 앞서 現存子女數를 통하여 본 것과 거의 비슷한 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즉, 全體的으로 볼 때 婚前妊娠婦人群의 平均出生子女數가 2.9名임에 비하여 婚後妊娠婦人群은 3.6名으로서 더 높은 出産力水準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또한 年齡別로 考察해 볼 때 現存子女數에서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30歲未滿의 年齡群에서 平均出生子女數는 婚前妊娠婦人群이 婚後妊娠婦人群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現象을 보여준다. 이러한 現象은 婚前妊娠婦人群의 潛在出産力이 婚後妊娠婦人群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可能性에 대한 앞의 說明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한편 30歲에서 34歲, 35歲에서 39歲의 두 年齡集團에서 平均出生子女數가 미세한 差異지만 平均現存子女數에서 婚前妊娠婦人群보다 婚後妊娠婦人群에서 더 높았는데 비하여 그 差異가 없다는 것은 嬰幼兒死亡率에 관련된 것으로 推測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程度의 差異를 두고 婚前妊娠婦人群에서 子女의 死亡率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다만 現存子女數나

Table 9. Mean Number of Children Ever Born Between Premarital and Postmarital Pregnancy Women by Respondent's Age Group

Women's Age	Premarital Pregnancy Women	Postmarital Pregnancy Women	All Women
Under 25	1.3	0.9	1.0
25-29	2.2	2.0	2.0
30-34	3.2	3.2	3.2
35-39	4.1	4.1	4.1
40-44	4.3	4.9	4.9
45-49	5.4	5.5	5.5
All Ages	2.9	3.6	3.5

出生子女數를 통하여 나타난 婚前妊娠婦人群과 婚後妊娠婦人群의 出産力水準을 比較할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近來에 오면서 婚前妊娠이 持續적으로 增加하여 온 事實을 감안하여 젊은 年 齡層間에서 兩群의 比較로 보아 婚前妊娠婦人群의 出産力水準이 확실히 높다는 사실이다.

2. 出産調節行爲 樣相

婚前妊娠婦人群의 경우 특히 젊은 年 齡層에서 出産力水準이 婚後妊娠婦人群보다 높다는 사실 이 이미 指摘된 바 있다. 그러면 이들의 높은 出産力은 상대적으로 婚後妊娠婦人群보다 避妊實踐 率이 낮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들 集團이 대체로 近代化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群으로 形成되 어 있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避妊實踐率이 높을 것인지, 이들 婦人들의 出産調節行爲 樣相을 살 펴 보기로 한다.

家族計劃實踐行爲는 現存子女數에 의해서 강한 영향을 받고 있음이 過去調查에서 밝혀졌다 (Lee, 1977)⁵⁾. 그래서 일차적으로 婚前妊娠婦人群과 婚後妊娠婦人群의 現存子女數를 基本變數로 하여 이들의 避妊行爲의 變化를 比較觀察했다. 表10에서 現避妊實踐率을 보면 全体 婚前妊娠婦 人群이 約 46.7퍼센트로서 全体 婚後妊娠婦人群의 約 44.0퍼센트보다 더 높은 避妊實踐率을 나 타내고 있다. 또한 現存子女數別로 區分하여 避妊現實實踐率을 보았을 때도 모든 現存子女數群에 서 婚前妊娠婦人群의 避妊實踐率이 婚後妊娠婦人群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일관된 現象을 보여 주고 있다. 婚前妊娠婦人群이 婚後妊娠婦人群보다 부분적으로나 30歲以下의 젊은層에서 出産

註5) Sea Baick Lee, "System Effects on Family Planning Behavior in Korean Villages". Ph. D. Dissert- 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77, p. 74.

力水準이 더 높았음이 觀察되었을 뿐만 아니라 本表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婚前妊娠婦人群에서 避妊實踐率도 높다는 事實은 避妊實踐行爲가 활발할 때 그만큼 出産力水準도 낮을 可能性이 있다는 일반적인 假說에 相値되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相値되는 現象은 어디에 기인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선 이들 婚前妊娠婦人群의 諸特性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婚前妊娠婦人群의

Table 10. Per Cent Distribution of Family Planning Using Status Between Premarital and Postmarital Pregnancy Women by Number of Living Children.

No. of Living Children and Premarital Pregnancy Status	Family Planning Using Status		Total (N)
	Current User	Current Not User	
0			
Premarital Pregnancy Women	8.7	91.3	100.0 (23)
Postmarital Pregnancy Women	4.5	95.5	100.0 (291)
1			
Premarital Pregnancy Women	22.6	77.4	100.0 (164)
Postmarital Pregnancy Women	16.9	83.1	100.0 (569)
2			
Premarital Pregnancy Women	46.3	53.7	100.0 (242)
Postmarital Pregnancy Women	43.4	56.6	100.0 (820)
3			
Premarital Pregnancy Women	60.1	39.9	100.0 (188)
Postmarital Pregnancy Women	58.6	41.4	100.0 (867)
4			
Premarital Pregnancy Women	63.2	36.8	100.0 (114)
Postmarital Pregnancy Women	60.2	39.8	100.0 (758)
5 or More			
Premarital Pregnancy Women	54.5	45.5	100.0 (66)
Postmarital Pregnancy Women	47.0	53.0	100.0 (858)
Total			
Premarital Pregnancy Women	46.7	53.3	100.0 (797)
Postmarital Pregnancy Women	44.0	56.0	100.0 (4,163)

Table 11. Per Cent Distribution of Contraceptive Using Methods' Between Premarital and Postmarital Pregnancy Women

Contraceptive Methods	Premarital Pregnancy	Postmarital Pregnancy
Loop	17.1	25.2
Oral Pill	18.4	17.4
Condom	17.9	13.6
Sterilization	22.4	18.1
Other Methods	24.3	25.7
Total (N)	100.0 (375)	100.0 (1,835)

特性이 비교적 婚後妊娠婦人群보다 近代的인 傾向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現代的인 知識 및 子女價值觀에 의하여 높은 避妊實踐率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推測된다.

좀더 具體的으로 分析하여 兩群의 方法別 避妊實踐狀態를 살펴보면 表11과 같다. 全體的으로 두 集團間의 比較를 통하여 注目되는 것은 各 方法別 實踐率의 差가 比較의 뚜렷하게 나타나는 現象이다. 루우프의 경우, 婚前妊娠婦人群에서는 約 17퍼센트임에 비하여 婚後妊娠婦人群에서는 約 25퍼센트로 8퍼센트포인트나 더 높게 나타났다. 反面 콘돔의 경우는 婚前妊娠婦人群이 約 18퍼센트로서 婚後妊娠婦人群의 約 14퍼센트보다 4퍼센트포인트 더 높다. 이 두가지 避妊方法에서 보여주는 實踐率 差異를 일반적인 避妊效果面에서 루우프가 콘돔보다 더 나은 것으로 알려진 것을 감안하여 兩群의 出産力水準의 差異를 直接 說明할 수는 없다. 그러나 個人 特性에 따른 避妊方法實踐의 差異와 出産水準 差異를 比較해 볼 때 本分析에서 보여주는 結果는 흥미롭다. 避妊方法別 實踐率과 出産率의 差異間의 相關性에 대한 原因分析은 좀더 깊이 觀察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루우프, 콘돔 이외의 먹는 避妊藥이나 其他方法의 實踐率은 두 集團間에 비슷한 反面, 不妊手術의 경우는 반대로 婚前妊娠婦人群에서 더 높은 受容率을 보인다. 이와같이 婚前妊娠婦人群에서 永久避妊 受容率이 높은 理由는 이들 婦人群의 社會的 特性에 關聯된 것으로 해석된다. 避妊受容者의 避妊方法別 特性分析(朴外, 1978)에서 以上の 說明을 뒷받침하고 있다.⁶⁾

지금까지 兩群婦人의 避妊行爲 檢討를 통하여 두가지 點에서 要約될 수 있다. 첫째, 全体 避妊受容率 水準에서 婚前妊娠婦人群은 婚後妊娠婦人群보다 높은 點과, 둘째, 避妊方法別 受容率의 差異에서 方法間의 受容好意性에 差가 있다. 즉, 婚前妊娠婦人群은 不妊手術이 가장 높은 受

註6) 例를 들어 不妊手術은 都市居住婦人, 教育水準이 높은 婦人 등에서 높은 實踐率을 보이는 것으로 指摘되었다.

朴 丙 台, 崔 炳 陸, 權 豪 淵, 1976年 全國 出産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查. 家族計劃研究院, 1978. Table 8-18, 8-19.

容率(22.4%)을 보인 반면 婚後妊娠婦人群에서는 루우프가 가장 높다(25.2%). 이러한 避妊方法間의 受容率 差異는 婚前妊娠婦人群의 特性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避妊實踐方法의 差異 이외에 婚前妊娠婦人群의 높은 避妊實踐率 現象에 대해서는 이들 婦人群의 諸特性 및 個人의 出產力水準目標 등 여러가지 變數들을 考慮하여 이들에 대한 좀더 깊은 分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結 論

1960年 以來 우리나라 女性의 婚前妊娠經驗率은 계속 增加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970年 以後 最近에 結婚한 婦人中에서는 約 20퍼센트 以上の 많은 婦人이 婚前妊娠의 經驗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西歐文物의 流入에 따른 傳統文化 및 社會構造의 變革과 함께 男女의 意識構造變化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높은 婚前妊娠率은 傳統的인 우리나라 價値觀에 비추어 社會的 問題로 重要視하기보다 本稿에서는 人口學的인 側面에서 婚前妊娠으로 인하여 길어진 可妊期間만큼 出產力이 높아질 可能性이 있다는데 注目한 것이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이들 婦人의 出產力水準 및 出產調節行爲를 婚前妊娠의 經驗이 없는 婦人群과 比較分析하여 보았다.

먼저 이들의 特性을 살펴볼 때 婚前妊娠經驗率이 높은 特性群으로는 都市居住婦人, 教育水準이 높은 婦人, 婚前就業의 經驗이 있는 婦人, 結婚年齡이 높은 婦人群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比較的 社會的인 參與가 보다 활발한 集團으로 볼 수 있으며, 近代化의 影響을 보다 많이 받은 集團으로 看做된다.

한편 이들 婚前妊娠婦人群의 첫 妊娠 終結狀態는 結婚前에 이루어진 것이 約 32퍼센트, 結婚後에 이루어진 것이 約 68퍼센트,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結婚前에 이루어진 경우 人工妊娠中絶이 多數를 차지하고(約 8%), 특히 正常出產으로 終結된 것이 約 22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음은 우리나라의 과거 傳統的인 價値觀에 비추어 상당히 離脫된 現象으로 注目視된다. 또한 婚前出產이 많은 이러한 事實은 近來에 first child-bearing tempo가 빨라지고 있는 現象에 直接的으로 影響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婚前妊娠婦人群의 出產力水準을 婚前妊娠의 經驗이 없는 婦人群과 比較考察하여 볼 때, 먼저 總妊娠回數에서는 거의 모든 階層에서 婚前妊娠婦人群이 더 높았다. 그러나 出生子女數 및 現存子女數를 통하여 살펴본 出產力水準에서는 兩群間에 뚜렷한 差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現象은 婚前妊娠婦人群에서 보다 높은 人工妊娠中絶回數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平均現存子女數 및 出生子女數를 통하여 고찰한 出產力測定은 30歲 未滿의 젊은 年齡群에서 婚前妊娠을 經驗한 婦人群이 婚前妊娠을 經驗하지 않은 婦人群보다 더 높은 水準에 있었다. 한편 30歲 以上の 비교적 나이 많은 年齡群에서는 婚前妊娠을 經驗한 婦人群의 出產力水準이 婚前妊娠

을 經驗하지 않은 婦人群보다 낮은 出産力水準을 보였다. 그러나 婚前妊娠을 經驗한 婦人이 젊은 年齡層에 많이 分布되어 있고, 現在 出産活動이 활발한 것으로 보아 이들의 潛在的 出産力은 높은 것으로 解釋된다.

婚前妊娠婦人의 出産力水準 考察을 통하여 얻어진 結論은 젊은 年齡層에서 이들의 높은 出産力에 따라 出産調節을 위한 避妊實踐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특히 婚前妊娠婦人群의 增加는 이들 婦人들이 보다 일찍 子女를 出産하게 함으로써 避妊實踐도 보다 젊은 時期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判斷된다. 현행 家族計劃事業의 주요 弘報對象인 既婚男女中心에서 未婚男女에 대한 婚前家族計劃으로 擴大普及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婚前妊娠의 頻도가 每年 增加하고 있는 趨勢와, 妊娠終結狀態가 婚前에 人工妊娠中絶로 많이 처리되고 있음을 볼 때, 婚前妊娠의 倫理觀 정립을 강조하기보다 妊娠의 危險에서 保護될 수 있는 避妊教育 내지 性教育 實施가 좀더 활발히 先行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参 考 文 献

1. 宋 建 鏞, “韓國婦人의 婚前妊娠에 관한 研究”, 家族計劃論集, 第 2 号, 家族計劃研究院, 1975.
2. 朴 丙 台, 崔 炳 睦, 權 豪 淵, 1976년 全國 出産力 및 家族計劃 評價調查 家族計劃研究院, 1978.
3. P. J. Donaldson, D. J. Nichols, “The Changing Tempo of Fertility in Korea”, (mimeo)
4. Melvin Zelnik and John F. Kantner, “The Resolution of Teenage First Pregnancie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Vol. 6, No. 2, 1974.
5. _____, “Contraceptive Patterns and Premarital Pregnancy among Women Aged 15—19 in 1976”,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Vol. 10, No. 3, 1978.
6. _____, “Sexual Experience of Young Unmarried Women in the United State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Vol. 4, No. 4, 1972.
7. Sea Baick Lee, “System Effects on Family Planning Behavior in Korean Villages,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77.
8. Sung-Bong Hong, Walter B. Watson, *The Increasing Utilization of Induced Abortion in Korea*. Korea University Press, 1976.

(Abstract)

An Analysis of Fertility for Premarital Pregnant Women

Sea Baick Lee* Byung Tae Park** Soon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contraceptive behavior and the timing of the first pregnancy or birth was examined using 5,996 women interviewed in the 1976 National Family Planning and Fertility Evaluation Survey.

In most of our previous studies, little data on premarital pregnancy was available for analysis and comparison with data on the number of live births and children after marriage. Therefore, in light of the importance of the timing of first pregnancy or birth for subsequent childbearing and in response to indications of a rising trend in premarital conception special attention was given to the fertility behavior.

It was discovered that premarital rates of first pregnancy consistently increase according to year of marriage. For example, it was found that the premarital pregnancy rate for the 1974~1976 marriage cohort was 26.0 per cent compared to 3.2 per cent for the cohorts married before 1950.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experiencing premarital pregnancy were compared to those in the same cohort.

Women with a relatively later ages at marriage, higher levels of education, have work experience before marriage, and younger ages at interview tended to be more likely to experience first pregnancy before marriage.

In order to measure fertility levels, three indicators were employed: total number of pregnancies, total number of living children, and total number of live births. Differences in total number of pregnancies by the timing of the first pregnancy were observed in each marriage cohort. Women premaritally pregnant had consistently more pregnancies than women postmaritally pregnant. Women who experienced premarital pregnancy had a larger number of living children than those women pregnant after marriage, especially in recent marriage cohorts. Premaritally pregnant women, under 34 have more live births than postmarital pregnancy women of the same ages.

* Deputy Director, KIFP.

** Researcher, KIFP.

With regard to contraceptive behavior, rather large differences in current practice rates were observed between premaritally pregnant and postmaritally pregnant women. At each level of living children greater proportion of women pregnant before marriage practiced family planning than women first pregnant after marriage.

Overall, women pregnant before marriage have relatively higher fertility and greater motivation to practice family planning than non-premaritally pregnant women. This suggests that family planning information, education, communication and services should be expanded for young unmarried women.